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본격 가동

익산시, 국책 연구기관·지방출연연구기관 박사·대학교수 등 40여 전문가 협력 활용

익산시가 미래 도시 경쟁력을 이끌 신성장동력 사업 빌굴에 쟁크탱크를 본격 가동한다.

국책 연구기관 및 지방출연연구기관 박사·대학교수 등 40여 전문가 협약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부처별 주요 사업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2일 시는 익산시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빌굴을 위해 농업·농촌분과를 시작으로 2023 국책사업 빌굴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정과제 및 부처별 주요 사업을 정밀 분석하여 신규 국가 예산사업과 시장에 반영할 주요 정책 빌굴에 주력한다. 기존에 발굴된 사업 중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논리 강화와 사업 구체화 등을 통해 국책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분과별 킥오프(Kick-off) 회의 단계부터 40여 명의 전문가 그룹과 30여 개의 사업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올해 전문가포럼은 △신산업·경제분과 △지역개발·SOC분과 △농업·농촌분과 △문화·보건·복지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전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지방출연연구기관 박사·대학교수 등 전국단위의 전문가를 균형 배치해 분과별 20여 건의 익산시 성장을 이끌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책사업 빌굴 전문가포럼은 이달 9월까지 운영되며, 국책사업 빌굴 외에도 시장 현안 사업 자문 등 익산시 정 쟁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포럼에서 발굴된 사업은 '2025~2027년 국가예산사업' 반영을 위해 워킹페이퍼 작성 및 연구용역으로 논리를 강화해 익산 빌전을 선도

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 국책사업 빌굴 전문가포럼은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사업 빌굴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발굴된 주요 사업은 국립 산재 전문병원 건립사업, 전라북도 K-문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지능형 농기계 가상 물리시스템 및 농작업 실증 기반 구축사업,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연구용역 수행 등을 거쳐 논리를 강화하여 종 양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 빌굴 전문가포럼을 통해 익산시 미래 빌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와 미국 풀러턴시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우호 관계”

군산시, 미국 풀러턴市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군산시와 미국 풀러턴시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풀러턴시 시장 일행(시장 프레드 정)이 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앞서 풀러턴 시장 일행은 지난달 30일 군산 농수산 산업 현장 등을 시찰했다.

특히 군산로컬푸드 매장과 옥구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농수산물 생산·판매 현장을 시찰하고 군산 특산물 심리 향미로 지은 쌀밥과 떡을 시식했다.

또한 수산물가공거점단지(해평동 소재)에서 오징어, 박대, 김 등 수산가공 식품 시식하며 군산 농수산물의 성장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다.

풀러턴시는 인구 14만여명 규모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내 도시로서 인구 중 한인의 비율이 1~4일 후에 나타나며, 김영 후 잠복기 5~21일을 거쳐 나타나 2~4주 동안 지속된다. 대부분 자연 치료 또는 대증치료이며, 필요시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 마트) 치료를 할 수 있다.

지역 소식통

익산시, 엠폴스 방역대책반

24시간 대응체계 돌입

익산시가 김영병 대응과 김영률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김영 예방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엠폴스 김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반을 편성 24시간 대응체계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2일 보건소에 따르면 엠폴스는 원승이두정·비아리스에 의해 전파,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명을 당초 '원승이두정'에서 '엠폴스'로 변경했다.

주요증상은 발열·오한·림프절 부종·피로·근육통 및 요통·호흡기 증상 등과 같은 증상이 1~4일 후에 나타나며, 김영 후 잠복기 5~21일을 거쳐 나타나 2~4주 동안 지속된다. 대부분 자연 치료 또는 대증치료이며, 필요시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 마트) 치료를 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대비 방역 총력

익산시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개최를 앞두고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장, 숙박업소 주변의 방역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 시작 전부터 대규모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회 시작 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방역을 시작하고, 대회 4일 전부터는 매일 경기장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을 방제하여 김영병을 시전 예방한다.

시 방역대책상황반을 운영해 해외 유입 및 수입성·식품매개 김영병 모니터링으로 집단 설사환자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도 대회 기간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매일 18시까지 운영해 증상이 있는 아태마스터스 참가 선수에 대한 무료·우선 검사 및 신속한 결과 안내가 이루어 지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마을전자상거래, 10억원 돌파… 농가 지원군 ‘톡톡’

익산시, 원예농산물 10억원 매출 전년 동월 31.6% 증가… 제값 받는 농산물로 농가 호응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매출이 4월 말 기준 10억 원을 돌파해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북돋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입점 농가가 1,000농가를 돌파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 말 기준 원예 농산물 매출 10억 원 달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6% 증가 했다.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www.eksanmall.com)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슬로건 아래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로 농가의 농업 소득 증대에 헌신 노력을 하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는 올해 공격적 마케팅 추진으로 전년 동월 매출액 7억6천만원 대비 31.6% 증가한 10억 매출을 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년간 쇼핑몰 대행 운영 및 라이브 방송 등 농·특산물 분야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뛰어난 대행사를 선정하고 온라인 쇼핑몰 기획 전 및 주력상품 프로모션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달부터 토마토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돋우기 위해 주 1회 이상 기획전을 추진하여 약 5천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로 입점 농가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611농가였던 입점농가가 지난 해 904농가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월 말 기준 1,000농가를 돌파해 현재 1009농가가 입점한 상태다.

1000번째 입점 농가는 청년 창업농인 망성면 이 모씨로,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택배비 지원과 맞춤형 프로모션 추진 등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 입점 확대와 올해 판매액 4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오픈마켓 입점(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추가로 판매처를 확대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우체국 쇼핑, 라이브 방송 추진 등 다양면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입점 농가 발굴을 위해서 지난 3월 미늘전자상거래에 미입점한 약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턱지 홍보를 강화했다. 또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농·고령농을 직접 찾발하는 등 전화·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농 빌굴에도 힘쓰고 있다.

정현율 시장은 "미늘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농·영세농·고령농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 없이 농시어부·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익산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미국 풀러턴시와의 우호 지원사격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장과의 간담 및 풍물파마렉 기업 시찰을 통해 시와의 우호관계 협력을 위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위치한 곳으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풀러턴 시는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공립 학교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최고의 학군과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프레드 정 시장은 풀러턴 시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2021년 12월 풀러턴 첫 한인시장이 됐으며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실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함께 FDA승인 및 미국시장 진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드 정 시장도 "전 세계에서 유



일하게 최소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실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함께 FDA승인 및 미국시장 진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드 정 시장도 "전 세계에서 유

일하게 최소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실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함께 FDA승인 및 미국시장 진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드 정 시장도 "전 세계에서 유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